



광주대 총장, 일본 오테몬가쿠인대학 부총장 일행 접견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최근 학교 행정관 접견실에서 일본 오테몬가쿠인대학 하타 게이치 부총장 일행을 접견하고, 유학생 교류 협의 및 축구부 합동 훈련 강화 및 내실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내가 바로 우리 마을 소식통

광주시청자센터, 마을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신태섭)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광주센터)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광주·전남·북 지역의 단체나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 공동체를 모집한다.

마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미디어 교육 및 강사 파견, 제작 실습과 마을 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과 장비, 멘토링 지원, 타 단체와의 교류 등 주민 간 소통문화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는 2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30일 서류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심사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이야기, 이웃과 겪고 있는 문제 등을 의제화 시켜 자기 발언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미디어여야 하며, TV·라디오·영화 등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에 대한 계획이 최우선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마을은 주민들이 마을을 소재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마을 소식을 전달한다.

고광연 센터장 직무대행은 “주민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동네방네 마을미디어’를 통해 마을 단위 공론장 형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마을의 이슈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마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이번 지원사업의 목표다”고 전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마을단체 혹은 주민 모임은 광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koko0822@kcmf.or.kr)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50-0334. /이보람 기자



북부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광주 북부소방서는 오는 5월까지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전체 68.6%를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11.7%, 기계적 요인이 6.0%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화재예방 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산불 초동 진압과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학기제 정착 및 공교육 정상화 지원 ▲관내 공사장 안전관리 ▲봄철 여행주간 및 안심수학여행 지원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등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봄철 산불(들불)예방활동 강화 ▲소방대상물 사전 안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은 “따뜻한 봄날을 만끽하고 안전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찬 기자

본사 손님

▲최영호씨(전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성현출씨(더불어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남궁철주씨

30년 품바 각설이타령 “희로애락 함께해요”

아리랑봉사단 단장...한달 1~2회 복지시설 공연

“어르신들의 인생을 되짚어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근무하는 남궁철주(57)씨는 직장 내에서 품바각설이로 불린다.

남궁씨가 1989년부터 30년 동안 봉사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품바 각설이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궁씨는 30여 전 합평 해변에서 얼굴에 연탄재를 묻히고 아이들 앞에서 사내 봉사활동을 한 것이 ‘품바 각설이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됐다.

남궁씨는 11일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웃기는 것을 좋아했다”며 “합평 해변

에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남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고자 분장 관련 책도 읽고, 술하게 각설이 공연을 관람해 품바 각설이타령을 몸에 익혔다”고 말했다.

치매노인시설, 정신지체아동시설, 양로원 등 6곳을 한달에 1~2번 돌면서 공연을 한다.

야간 근무자인 남궁씨는 낮에 시간을 쪼개 1시간-1시간 30분 공연을 한다.

여러 겹 기운 옷에 울상을 짓고 있는 표정, 쭈뼛쭈뼛 제멋대로 뺨은 머리카락이 엉락없이 각설이 모습이다.

여기에 구성지게 뽐아내는 소리까지 보 통 소리꾼이 아니다.

남궁씨는 1995년 결성한 아리랑봉사단

(총 7명) 단장을 맡아 이 단체와 공연을 하기도 한다.

남궁씨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사비를 털어 떡, 돼지고기, 과일 등을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남궁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신지식인 사회봉사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품바와 함께하는 3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그동안 봉사활동을 다녔던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 ‘효’를 주제로 하는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

남궁씨는 “공연을 끝나고 어르신들이 손수건으로 제 땀을 닦아주면서 ‘다음에 또 꼭 오라’는 말씀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의 기쁨과 슬픔을 제 작품에



녹여 선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건강한 한 퇴직 후에도 품바 각설이 공연을 하고 싶다”며 “더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미에 기자

2018 광주 초등·중학과정 문해교육교원 연수

일시 : 2018. 3. 9(금) ~ 3. 23(금) 장소 :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교원 연수’

연수생 51명 참여...“시민들에 희망의 빛 전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진흥원 내 4층 대강의실에서 ‘2018년 초등·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 개강식에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선발된 51명의 연수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총 50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 15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후 문해교육 교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성인문해 교육은 단지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닌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자해독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문해교육 교원연수 주요 교육과정은 문해교육 개론을 비롯해 교수법, 문해교육 교사의 가치와 사명, 프로그램 기획·개발 등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교과목으로 구성됐다.

그 동안 문해교육 교원연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해왔으나, 시민의 참여의지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초등 59명, 중학 17명을 양성했다.

진흥원은 올해 초등·중학과정 문해교육 교원연수는 물론, 문해교육 교원 보수교육 및 파견사업, 제3회 문해의 달 기념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올해 실시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다”며 “이런 열정을 갖고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는 문해교육 교사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주진걸 동신대교수, 한국방재학회 논문상 수상

동신대 주진걸 토목공학과 교수가 최근 서울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주 교수는 ‘저영향평가(LID) 기법의 적용에 따른 배수분구단위 우수유출저감효과’에 관한 논문과 ‘상수관망 공급능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의 차폐구역을 고려한 다목적 최적 설계’ 논문 등 다수의 논문을 통해 방재 분야 기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저영향평가(LID) 기법의 적용에 따른 배수분구단위 우수유출저감효과’에 관한 논문에서 주 교수는 강우 발생시 침투/저류 시설을 통해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 효



과를 분석해냈다.

‘상수관망 공급능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의 차폐구역을 고려한 다목적 최적 설계’ 논문에서는 상수관망 사 고 발생시 안전적으로 유수를 공급할 수 있고 상수관망 설치 비용이 저렴한 최적의 설계모형을 개발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관광분야 외에도 정책, 법률, 투자유치, 개발, 의료, 물류,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분야별로 각 5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황애란 기자

한승훈 호남대교수, 경기도 관광투자 전문가 위촉

호남대 한승훈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경기도청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광투자분야 전문가로 위촉됐다.

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관광산업 중요성의 배가 및 투자유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잠재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과학고,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 선발’ 다수 선정

(재)한성 손재한 장학회가 주최한 ‘제5기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 선발’에 광주과학고 학생 9명이 선정됐다.

올해로 제5기를 맞이하는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 장학중서 수여식’은 2014년 (재)한성 손재한 장학회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과학·인문 영·수재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180여명을 선발해 장학생 1인당 자연계열 1,000만원, 인문계열 600만원을 2년에 걸쳐 지급한다. /황애란 기자

광주과학고는 한성 노벨 영·수재 장학생선발을 위해 노벨상도전계획서, 담임 및 교과 소견서, 교과활동 실적서 등의 서류 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1학년 학생 97명 중 9명이 최종 합격해 선발됐다.

광주과학고 서관석 교장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창의융합형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학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예술역량 배양·부족한 인력 양성

광주문화재단,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 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실시한 청년문화 실태조사 결과 청년 문화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 및 확대’와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반영해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한다.

재단은 문화예술 단체에 미취업 청년을 배치해 직무경험과 예술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받은 예술단체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설의 배치인력에 대한 관리 능력과 지역문화예술 관련 사업 수행 능력 및 계획, 사업 참여 기대효과 및 인력양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배치인력의 법적 지위 보장 및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광주문화재단의 교부절차 준수, 필수

교육 참석, 실적보고서 제출, 배치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 지정, 지원기간 종료 시 지원금 정산 및 사업 평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선정이 확정되면 배치기간인 6개월 동안 1인당 월 2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4대보험은 단체 당 100만원 이내로 선정단체 사업주의 부담을 지원한다.

오는 22~23일 양일간 재단 혹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광주문화재단 김윤기 대표이사는 “문화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년과 지역문화예술 단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청년문화 일자리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보람 기자

謹 故 人 的 冥 福 을 빕니다 弔

故 박애순 님 (81세)
이영근,야성씨(모친상), 14일(수) 10시, 장지:영락공원 묘지, 지하 5분향소

故 고운애 님 (88세) 故 김창욱 님 (77세)
박영,현씨(모친상),김경남,안천순씨(빙모상), 14일(수) 7시30분, 장지:해남군 신이면 선영, 특 402분향소 정권씨(부친상), 조영태씨(빙부상), 발안:14일(수) 8시, 장지:영락공원, 특실 302분향소

故 장의순 님 (88세) 故 유복순 님 (93세)
류호현,숙현씨(모친상), 서정할,김성일, 양운형,윤문수씨(빙모상), 발안:14일(수) 8시30분, 장지:고흥군 고흥읍 선영, 특실 10분향소 강홍원,경원,춘원,진규씨(모친상), 박재계,고재일,오기록씨(빙모상), 발안:13일(화) 9시, 장지:고창 성승면 선영, 특실 9분향소

그린장례식장(주) 24시간 대기 062) 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m